

21세기 도전과제를 위한
전인적 세계시민교육(GCED)과 글로벌 기업가정신

김영길 박사

유엔아카데미인팩트 한국협의회 회장

한동대학교 초대총장 및 명예총장

주제어: 전인적 세계시민교육, 정직, 성실, 책임, 사랑

저자: 김영길 박사, 유엔아카데미인팩트 한국협의회 회장, 한동대학교 초대총장 및 명예 총장

인용표기 방식: Young-Gil Kim. Holistic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Global Entrepreneurship for the Challenge of the 21st Century, 2018,3:25

초록

21세기 지구촌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로 생태계 보호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빈곤과 청년 실업으로 촉발된 사회적 포용의 문제는 극단적 폭력과 도덕적 해이로 더욱 조명 받고 있다. 모든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이 중 한 가지를 해결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근본 원인을 다루어야만 한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행동과 특징에서 비롯된다. 전 세계가 당면한 도전과제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 해법은 바로 인간을 변화시키

는 것이다. 어떻게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교육이 유일한 해법이다. 교육을 통해서 인간 정신과 전혀 없던 21세기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 교육 시스템에서는 전 세계 당면 과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주로 경제 성장과 개발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많은 학교와 대학이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 양성에 집중하기보다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전문가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고방식, 가치관, 태도를 기르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우리가 단순히 독립된 인간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패러다임이어야 한다. 또한 보다 지속 가능한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 경제, 환경, 사회의 상호의존성을 다루는 패러다임이어야 한다.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은 세계시민 양성 및 육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주목받아 왔다. 세상의 현실에 대해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기 위한 세계적인 관점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학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 환경, 사회 문제를 아우른다.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세계시민이란 법적 지위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글로벌 공동체와 보편적 인류에 대한 소속감을 뜻하는 것이다.

진정한 인간 교육은 지식을 전하고 보급하는 일뿐만 아니라 물리 세계의 수준을 뛰어넘어 지성, 도덕성, 영성의 영역까지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학생들의 인성과 삶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전인적 세계시민교육(GCED)은 인간 정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쇠이다. 전인적 세계시민교육(GCED)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콘텐츠, 변혁적 교육학, 교육의 실질적인 글로벌 이행이 필요하다.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를 전달해준다. 기업가의 성공도 정직과 성실의 엄격한 준수를 전제로 한다. 또한 정직, 성실, 책임, 사랑은 전인적 세계시민교육(GCED)의 핵심가치이다. 전인적 글로벌 고등교육은 21세기 경제 및 사회 발전,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서문

21세기의 대학은 새롭고 획기적인 교육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앞으로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렵고, 역동적인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젊은이들을 준비시켜야 한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에는 하드웨어 중심의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했다. 생산 수준이 한 나라의 산업 역량과 번영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였다. 이 시기의 대학교육은 학생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도록 훈련하는 데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교육은 단순한 암기 훈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은 학생들이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불가능에 도전하며,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학생들의 인격과 삶을 바로 잡아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21세기에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역동성과 성실, 정직, 겸손에 대한 이해가 깊은 다차원의 리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부과정에서부터 새로운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변화이자, 세계적인 지각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21세기로 나아갈수록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제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이제 글로벌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점점 좁아지는 세계에서 우리 역시 빠른 속도로 세계시민으로 되어가고 있다. 즉,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국제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21세기 하나의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세계시민으로서 전 세계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사고하고 행동하는 역량을 기르는 등 글로벌 사고 방식 함양이 필요하다. 21세기의 전 세계는 상호 연결, 상호 의존적이며 역동적이다(Davis 2001). 세계는 기후 변화, 청정에너지, 식량, 물 문제뿐만 아니라 가치 및 도덕적 위기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세계시민을 양성해야 합니다. 교육은 문해력과 산술 능력을 넘어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보다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인 사회를 이룩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The 8th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on 26 September 2012).

“세계시민교육(GCED)은 앞으로 젊은이들이 상호 의존성이 깊고 복잡하고 취약한 세상에서 살아갈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국제화, 교육, 그리고 계획에 의한 노력의 교차점에 대해 고심하고 있

다”(Guadelli 2016).

세계시민교육(GCED)은 21세기 국제화 환경에서 세계시민을 육성하는 새로운 교육이다(UNESCO 2014). 전 세계 도전과제들은 새로운 세계시민교육(GCED)을 통한 글로벌 해법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GCED)은 보다 더 정의롭고, 평화롭고, 관용적이고,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를 어떻게 교육을 통해 함양하는지를 보여주는 교육 패러다임이다.

전인적 세계시민교육(GCED)은 전 연령대의 학습자가 인권 존중, 사회 정의, 다양성, 성 평등,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하여 가치, 지식,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고 책임 있는 세계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인적 세계시민교육(GCED)은 학습자들에게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세상과 미래를 이룩할 권리와 의무를 깨닫도록 능력과 기회를 제공한다. 전인적 세계시민교육(GCED)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콘텐츠, 변혁적 교육학, 교육의 실질적인 글로벌 이행이 필요하다.

전인적 세계시민교육(GCED)은 한동대학교가 1995년 개교(www.handong.edu) 이래 실천해 온 ‘한동명예제도(Handong Honor Code)’와 같이 21세기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상호 연결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 학업과 생활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다.
-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 모든 말과 글과 행동에 책임을 진다.
- 다른 사람과 함께 국제적으로 살아간다.
-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킨다.

정직, 성실, 책임, 사랑은 전인적 세계시민교육(GCED)의 핵심가치이며 무질서한 엔트로피 세계를 질서정연하고 조화로운 세계로 회복하여 지속 가능한 글로벌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교육하고 실천해야 할 요소이다(Kim 2014).

유엔 글로벌교육개발구상(UN Global Educational Development Initiatives): UNAI & UNESCO/UNITWIN

유엔 헌장의 3대 핵심 가치는 평화, 개발, 인권이다. 유엔 헌장은 국경을 초월한 국가 간 연합, 평화 보장, 사회 발전을 증진하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인류가 역사상 가장 야심찬 노력을 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이 말했듯이, ‘유엔은 전쟁터를 회의 테이블로 대체하고자 하는 인간의 소망을 가장 조직적으로 대변’한다. 따라서 글로벌 교육을 통해 지구의 상호연결성을 이해하고 모든 이들을 대신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세계시민들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다른 문화와 다른 지역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글로벌 교육에서 전 세계는 국가, 문화, 사회가 활발히 상호 작용하는 곳이다. 또한 글로벌 교육은 국경을 넘나들고, 시야를 넓히며, 학습자들이 인류의 업적과 다양성을 접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인적 글로벌 교육은 세계 모든 이들의 공통성을 강조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 교육 시스템은 이러한 국제적 의식 교육을 토대로 하지 않는다. 자국의 충성된 국민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각 국가의 유산과 전통을 기리는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데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학교는 국가적 목표와 이해 추구에 기여해야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와 세계적 차원에서의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세계시민을 위한 글로벌 교육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평화와 발전의 핵심 요소이며, 국제회의 테이블에서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토대이다. 만일 우리가 다른 국가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두려움과 오해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야 하며, 어떤 국가도 혼자서 다룰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회의 테이블로 나아가야 한다(Adams 2010).

2010년 11월 1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아카데미임팩트(UN Academic Impact, UNAI)를 처음으로 발족하면서 (<http://academicimpact.un.org>) “교육을 통해 국경을 넘어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상호 연결성이 깊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인간 발전의 원동력이다. 교육은 보다

나은 세상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를 함양한다(Adams 2010). UNAI는 교육기관들에게 유엔의 사명, 정책, 행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유엔과 글로벌 고등교육 분야 간 관계를 개발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UNAI는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과 고등교육 기관 및 연구 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회원 기관의 사명과 관련된 아이디어와 구상을 공유하는 접점 역할을 하며, 관련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각 기관이 직접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UNAI는 지적, 사회적 책임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장려하는 글로벌 지성 운동 창출을 목표로 한다. 10대 핵심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며, 2017년 8월 기준 전 세계에 10개의 글로벌 허브, 1,012개의 UNAI 회원 대학교를 두고 있다. UNAI는 다음과 같이 10대 핵심 원칙을 지지하고 추진하고자 한다.

1. 교육을 통해 증진 및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등 유엔 헌장이 추구하는 원칙에 대한 책무
2. 평등, 의견, 표현의 자유 등 인권 신장에 대한 책무
3. 성별, 인종, 종교, 민족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에 대한 책무
4. 고등교육을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모든 이를 위한 기회 제공에 대한 책무
5. 고등교육 체계 역량 개발에 대한 책무
6. 교육을 통한 세계시민 양성에 대한 책무
7. 교육을 통한 평화 구축 및 분쟁 해결에 대한 책무
8. 교육을 통한 빈곤 퇴치에 대한 책무
9.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성 증진에 대한 책무
10. 교육을 통한 문화 간 소통과 이해 증진, 불관용 철폐(<http://academicimpact.un.org>)

UNAI 기본원칙을 적극 지지하기 위해, 각 회원 기관은 한 가지 이상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 연 1회 이상 활동해야 한다. 비전을 행동으로 옮긴 2011년은 UNAI가 발족 당시의 결정 사항인 10대 글로벌 허브 설립을 이행한 첫 해였다. UNAI 10대 글로벌 허브는 UNAI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 회원 기관의 특수 원칙에 따른 활동 수행 공간을 유지, 모범 사례 공유를 목표로 한다. 유엔에서 추진하고자 하며 회원 기관이 연구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가 UNAI 글로벌 허브에서 진행된다. UNAI 글로벌 허브는 UNAI 기본원칙 지지를 위해 행사, 강의, 국제회의를 조직한다.

한국에서는 포항의 한동대학교(www.handong.edu)가 2011년 전 세계 '고등교육 체계 역량 강화' 글로벌 허브(<http://academicimpact.un.org>)로 지정되었다. 한동대학교의 UNAI 역량 강화 글로벌 허브는 글로벌 교육과 기업가정신, 녹색 성장 연구, 번영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현에 힘쓰고 있다.

현재 59개 회원 대학교가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유엔아카데미팩트 한국협의회(UNAI-Korea)는 2013년 11월 8일 외교부에 등록되었다(<http://www.unaikorea.org>).

유네스코 유니트윈 프로그램(UNESCO/UNITWIN Program)은 1992년 파리에서 발족되었다. 유네스코 유니트윈(UNESCO/ UNITWIN, University Twinning & Networking) 프로그램은 지식 공유와 협동 업무를 통한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 간 국제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한다. 2007년 4월 5일 파리에서 한동대학교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를 위한 유네스코 유니트윈 네트워크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유니트윈 프로그램은 2007년 4개 대학에서 시작되었고,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글로벌 고등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북남남 삼각협력을 구축하여 2017년 기준으로 28개국에서 71개 대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

21세기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고등교육은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 심각한 가치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가 경제적 이익과 성장이라는 제한된 목표를 뛰어넘으려면 도덕성과 영성 교육에 대한 폭넓은 관심이 필요하다" (UNESCO Reforming Higher Education 2009).

21세기의 대학은 그림1과 같은 새롭고 획기적인 교육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1990년대 중반에는 중요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정보기술 주도의 국제사회로 진입

하는 신기원을 이루어냈다. 1994년 인터넷(World Wide Web, www)이 상용화되었고 WTO(세계 무역기구)가 GATT(국제무역협정)를 대체하면서 세계가 글로벌 경제의 시대로 들어섰다. 20세기의 핵심 축(세로축 '자')은 지식축적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정직과 성실을 강조하는 인성 교육을 기반으로, 국제화를 지붕으로 삼는 한자 '장인 공'(工)자로의 전환이 일어났다. 21세기 종합 고등교육의 새로운 교육 체계는 한자 '장인 공'자로 함축해 설명할 수 있다. '장인 공'자의 기반 구조는 모든 교육의 기초를 형성하는 세계시민교육(GCED)의 도덕적 측면을 나타낸다(Kim 2010). 세로축은 지식 콘텐츠를, 위의 가로축은 국제화 교육을 나타낸다. 교육 구조 전체의 안정성은 기반이 얼마나 튼튼한가에 좌우된다. 정직, 성실과 같은 확고한 기초 없이 축적된 지식은 교육 구조 전체를 약화시키거나 붕괴시키며, 사회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친다.

21세기 교육 콘텐츠는 그림1에서 묘사되었듯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에는 하드웨어 중심의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했다. 생산 수준이 한 나라의 산업 역량과 번영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였다. 이 시기의 대학교육은 학생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도록 훈련하는 데 맞춰져 있었고, 축적한 지식은 개인의 직업 경력에 오랫동안 유용했다. 하지만 교육은 단순한 암기 훈련에 그쳐서는 안 된다.

21세기 대학 교육이 직면한 새로운 과제는 학제 간의 장벽을 넘어서는 폭넓은 지식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이다. 기존 대학의 학과들은 학제의 경계선을 따라 구분해 설정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여러 문제와 과제는 이미 결정된 학문의 경계를 따라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기술적, 비기술적 분야에서의 폭넓은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대학 교육이 다양한 학문 분야 사이에서 학제 간에 교류하고 경계를 초월하는 훈련을 강조해야 한다. 학제 간 교육은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한해서 하나 이상의 분야를 전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학제 간 경계를 초월하는 교육은 학생들이 서로 관련이 없고 상이한 학문 분야들을 전공할 수 있도록 한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학생들이 졸업 후에 스스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식을 교육받아야 한다.

글로벌 환경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래 인재들이 학문적, 기술적 분야에서 잘 준비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글로벌 리더십의 자질을 갖추고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교육의 또 다른 과제는 이제 대학이 학문과 기술 교육을 경영 윤리, 사회적 책임, 환경 보호,

호혜적이며 협동적인 관점과 연계하는 글로벌 리더십 훈련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래 글로벌 리더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림 1. 'I'에서 '장인 공(工)'으로의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산업화 시대의 자산과 경제적 번영의 주요 동력은 기계와 자본, 즉 물질적 자원이었다. 인간은 필요하지만 대체 가능한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 정신, 감성, 영혼으로 이루어진 4차원적 존재이다. 결국 진정한 인간 교육은 지식을 전하고 보급하는 일뿐만 아니라 물리세계의 수준을 뛰어넘어 지성, 도덕성, 영성의 영역까지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21세기 초고속 정보 사회에서 학문, 도덕성, 영성 개발을 아우르는 전인적 교육이 중요해졌다(Covey 2002).

교육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하지만 현대 연구의 영향으로 오늘날 대학들은 이 문제를 학문과 동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다루지 않는다. 하버드대학의 전 학장 해리 루이스 교수(Harry R. Lewis)는 '우리는 인간다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문학을 가르치는 기술을 잃어버렸다'라고 한탄했다(2006). 예일대 로스쿨의 전 학장인 앤서니 크론먼(Anthony T. Kronman) 또한 '대학교수들은 삶의 의미라는 질문을 무시해왔다. 특히 인문학 교수는 한때는 삶의 의미라는 질문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인도해'

야 한다는 특별한 책임감을 느꼈으나 이제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확신을 잃었다'라고 말했다 (2008). 크론먼은 상상력이 풍부한 문학과 철학 작품들을 신중하게 비판적으로 읽음으로써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인문학의 잃어버린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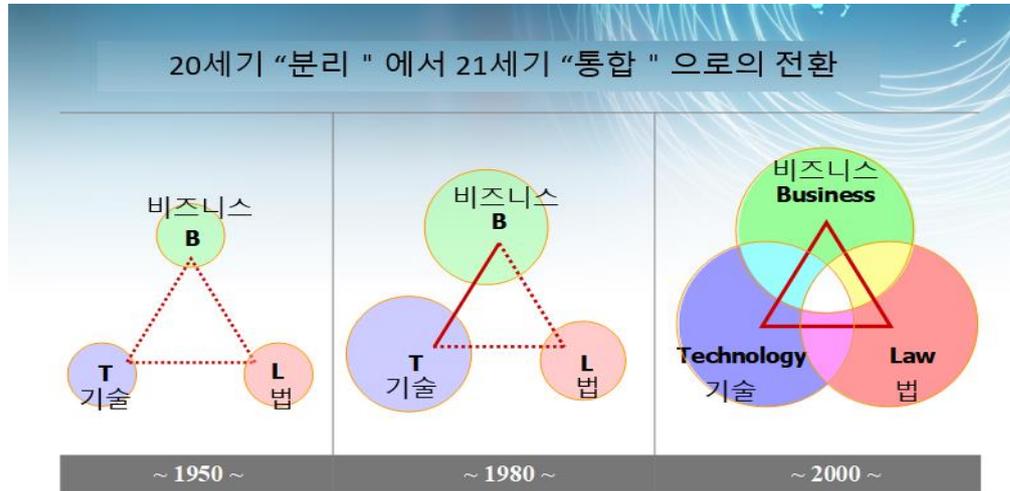


그림 2. 기술, 비즈니스, 법의 변화

21세기 고립에서 통합으로의 전환, 새로운 전인적 세계시민교육(GCED) 모델

1960년대 산업화 시대에 기술, 비즈니스, 법은 그림2a와 같이 영역의 크기가 작았고 서로 분리되어 연관성이 없었다. 그림2b에서 알 수 있듯이 80년대 기술 발전 시기에 기술과 법 간에는 교류가 거의 없거나 간헐적이었으나 기술과 기술 관련 비즈니스의 영역이 성장했다. 하지만 그림2c가 보여주듯이 21세기 정보지식주도의 글로벌 환경에서는 기술, 비즈니스, 법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어 세 분야가 중복되고 상호 교류가 활발해졌다. 결국 서로 교차하는 세 개의 원은 단단한 결정 구조를 만들어내고, 새 시대의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에 꼭 필요한 포괄적이며 상호 연결된 지식 구조를 형성한다.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비교 우위를 선점하려면 기술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 비즈니스의 국제화는 경쟁의 규칙뿐만 아니라 경쟁의 장 자체를 변화시켰다. 오늘날 비즈니스 거래에는 선진 신기술이 항상 사용된다. 정보 흐름의 속도와 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환경의 흐름과 미래 기술진보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전인적 글로벌 기업가정신 교육 이행: 글로벌 발전의 촉매제로서의 기업가정신

국제사회는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설정하고 기아와 빈곤 퇴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결과는 기대한 바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모든 원인에 공통적인 한 가지 기본적인 문제는 지속가능성일 것이다. 수여국은 도움의 손길이 사라지고 프로젝트 이행이 끝나면 점차 또는 즉시 기존 관행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의지가 부족하고, 장기간의 방치로 절망과 낙담이 무관심으로 이어져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행동 의지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사고방식이 변화해야 한다. 이 변화는 사람들에게 동기과 희망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지 배우는 것 외에도 사고방식의 실제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의지를 함양하는 것은 개발의 열쇠가 될 것이며 개발도상국, 특히 젊은 리더십 세대를 위한 교육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을 통해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단순한 지식 전달로는 필요한 변화를 이룰 수 없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3. 21세기 새로운 전인적 세계시민교육(GCED)

특정 환경에서 삶의 어떤 영역을 바꾸기 위해 행동에 나서겠다는 동기를 기업가정신이라고 한다. 좁은 의미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뜻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러한 정신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Kim Y & Kim G. 2010). 대부분의 사람들은 좁은 의미에서의 기업가 정신만을 이해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기업가정신을 갖춘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업가정신을 좁은 의미에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Kim Y & Kim G. 2010).

개발 원조의 전통 모델은 주로 개발도상국의 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현금 지원이었다. 원조 자금 보급도 수여국의 정부가 주로 맡았다.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개발도상국에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낚싯대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낚싯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이 비유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낚싯대는 반드시 현대 교육이 개발도상국 학생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며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고방식의 변화가 용기, 자신감, 희망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일은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은 원주민을 대상으로 할 때 가능하며 원조 자금을 사업 투자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 받은 원주민 리더십 계층은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을 이끌어주며 이는 일자리 창출과 상업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적인 환경이라면 다른 계층도 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수 있고 국가 전체 생활수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수십 년간 빈곤과의 전쟁을 펼쳤지만 예상만큼 성공적이지 못했다. 빈곤 퇴치의 성과가 더딘 이유는 막대한 규모의 원조가 빈곤에 시달리는 국가들에게 제공되었음에도 지역 사회가 노동자를 고용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경제 시스템에 재투자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비결 중 하나인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창조적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구축되고 운영되는 비즈니스, 가치를 강화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의지가 빈곤 퇴치 발전의 효과적인 촉매제다.

2012년 12월 7일 유엔 총회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기업가정신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발전을 위한 기업가정신'이라는 제목의 결의안은 기업가정신을 발전의 촉매제로 제시하기 위해 고안되었고, 기업가에게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고, 교육을 제공하며, 사업 설립에 따른 관료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촉구했다. 결의안은 유엔이 기업가정신을 빈곤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공식 인정했음을 최초로 보여주었다. 이 결의안은 '국가들

이 기업가정신을 위한 국가 우수 기관과 유사 기관을 설립 또는 강화하도록 권장하며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 모범 사례 공유를 장려한다.

한동대학교 글로벌기업가정신센터(Global Entrepreneurship Center, GEC) 설립

2012년 12월 7일 유엔 총회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UNAI 고등교육 체계 역량 강화 글로벌 허브로 지정된 한국의 한동대학교는 2007년 4월 발족한 유네스코 유니트윈(University Twinning & Networking) 프로그램과 협력해 2013년 4월 글로벌기업가정신센터(GEC)를 설립했다. 한동대학교 GEC는 정직과 성실이라는 도덕적 기초를 바탕으로 학제간 경계를 초월해 역동성과 창의성을 두루 갖춘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필요한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교육한다. 기업가정신 교육은 개발도상국의 공무원과 NGO직원을 포함한 학부 및 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한동국제개발협력대학원(Handong Graduate School of Global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hip, HGD&E)은 전 세계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빈곤을 종식시키며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다. 교육과정은 그림4와 같이 정직과 성실을 기반으로 하여 학제간 경계를 초월하며 국제 비즈니스와 국제법, 과학 기술, 교양을 통합한다.

GEC는 한동대학교와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되는 유네스코 유니트윈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2008년부터 단기 훈련 프로그램인 글로벌 기업가정신 훈련(Global Entrepreneurship Training, GET)을 실시해왔다. GET 프로그램은 국내외 학생들, 예비 사업가, 정책 결정자 등 공직자, 경영 및 공학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GET의 기업가정신 교육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 기술, 의지를 갖추도록 훈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GCED)은 기업가정신 교육의 두 가지 특징을 강조한다. 첫째는 학생들의 사고방식의 변화이며, 둘째는 학생들의 윤리 기반 구축이다. 기업가정신 교육에서 윤리 교육이 기업가의 성공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가의 성공은 정직과 성실의 엄격한 준수를 전제로 하며, 이를 통해 기업가가 투자자와 소비자 모두로부터 필요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사고방식의 변화는 동기, 희망, 열정,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신생 기업들의 지식과 결합하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촉발해 공동체의 기풍을 변화시킬 수 있다. 윤리 기반은 세계시민교육(GCED)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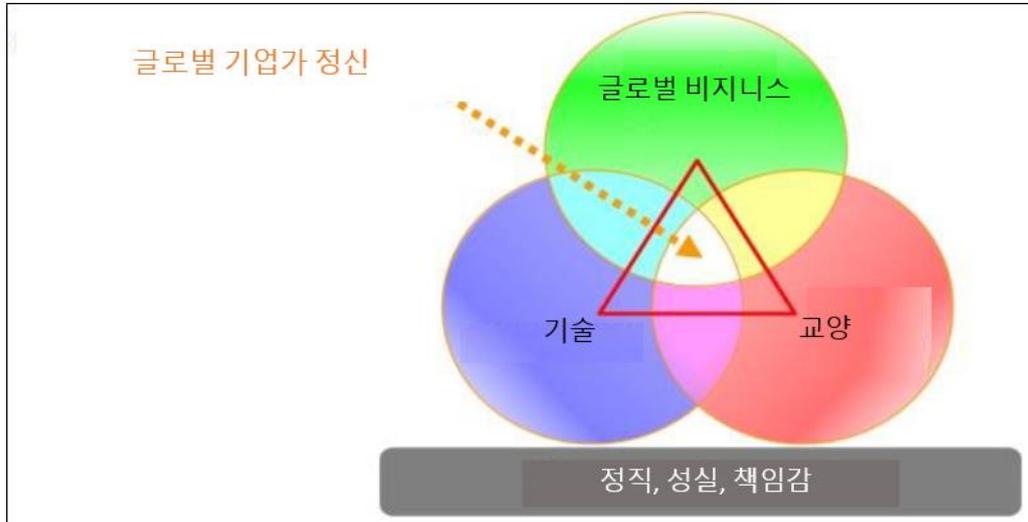


그림 4. 학제 간 경계를 초월하는 전인적 세계시민교육(GCED)

GEC는 IT, 국제 경영, 국제법을 통합한 최초의 기업가정신 센터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업가정신이 장려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다. 물론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분야로도 확장될 수 있다. 사실 기업가정신 교육 역시 기업가정신을 갖추어야 한다.

전인적 세계시민교육(GCED)의 새로운 과제: 반기문 UNAI 글로벌교육원(Ban Kimoon Global Education Institute in Support of UNAI, GEI)

UNAI 한국협의회는 한동대학교와 함께 2018년 3월 반기문 UNAI 글로벌교육원(GEI)을 발족했다. GEI는 2019년 3월 준공 예정이며, 협동 교육과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을 위한 교육 체계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이다. GEI는 UNAI 글로벌 허브 대학인 한동대학교에 위치하여 UNAI 회원국과 국제기구 가운데 세계 우수 대학 및 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다.

GEI는 세계시민교육(GCED)을 위한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관으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 세계는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분야 주제로 세계시민교육(GCED)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GEI는 세계시민의식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에 강조점을 두고 전인적 세계시민교육(GCED) 제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GEI 프로그램은 전인적 세계시민교육(GCED)의 핵심 가치인 정직, 성실, 책임, 사랑을 가르칠 것이다. 이것이 다른 기관과 GEI의 차이점이 될 것이다.



그림 5. 반기문 UNAI 글로벌 교육원(Ban Ki-moon Global Education Institute in Support of UNAI, GEI)

GEI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인적 세계시민교육(GCED)’이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국제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러나 GEI는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고 기술을 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랑에 기초한 정직성, 성실성, 책임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따라서 GEI에서는 다른 어떤 교육보다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

GEI의 주요 프로그램은 전인적 세계시민교육(GCED)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글로벌 기업가정신 아래 운영될 예정이다. UNAI-한동그레이스학교(Globally Responsible and Advanced Citizenship Education, GRACE)를 통해 전인적 세계시민교육(GCED)을 위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UNAI-한동그레이스학교는 세계시민교육(GCED)을 전 세계에서 제공하기 위해 고등교육

기관들을 지휘하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학교의 복수 학과 프로그램에 담긴 다양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세계시민의식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또한 전 세계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사고방식과 태도뿐만 아니라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길러낼 계획이다. 학교는 결국 학습자가 지역과 세계에 적극 참여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줄 것이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글로벌 기업가정신’은 친환경 미래 세계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 연구 프로그램이다. 글로벌기업가정신센터(Global Entrepreneurship Center, GEC)의 철학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과 환경을 융합한 글로벌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글로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교육할 것이다.

GEI는 세계시민교육(GCED)과 더불어 새로운 교육 방향을 제공하기 위해 UNAI 회원 대학간 연구 교류를 활성화할 것이다. 연구 활동은 세 가지 필수적인 관점이자 글로벌 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향인 ‘인간화’, ‘국제화’, ‘미래화’를 제시할 것이다(Kim 2018).

결론

글로벌 평화, 번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21세기의 성공적인 교육적 패러다임은 20세기와는 전혀 다를 것이다. 미래 세계시민교육(GCED)을 위해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와 변혁적인 교육학, 교육의 실질적인 글로벌 이행이 필요하다. 20세기의 대학교육은 학생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도록 훈련하는 데 맞춰져 있었고, 축적한 지식은 개인의 직업 경력에 오랫동안 유용했다. 하지만 교육은 단순한 암기 훈련에 그쳐서는 안 된다. 21세기에 학생들은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국제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단 하나의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새롭고 창의적인 세계시민교육(GCED)을 통해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사고하고 행동하는 역량을 기르는 등 글로벌 사고방식 함양이 필요하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인적 세계시민교육(GCED)의 핵심은 정직, 성실, 책임, 사랑이다.

세계시민은 21세기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상호 연결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세계시민은 모든 말과 글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학업과 생활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국제적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글로벌 평화, 번영,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 지구 생태계 보존을 위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킨다.

감사의 글

새로운 교육 운동인 '전인적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뜨거운 열정과 공동의 비전을 나누고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나의 동역자이자 한동대학교 현 총장인 장순홍 박사께 감사드립니다. 한동대학교 이사장이신 이재훈 목사님과 김희준 Meridien DNI 대표, 최창걸 고려아연(주) 명예 회장과 부인 유중근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이순규 대한유화(주) 회장께 큰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유엔아카데미임팩트(UNAI) 한국협의회팀과 박원곤 사무국장, 황윤희 사무차장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반기문 UNAI 글로벌 교육원(GEI) 건립에 큰 재정 지원을 해주신 이승훈님과 그의 모친 이영숙 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참고문헌

1. Adams, Michael, J. Fulfilling the United Nations Promise. UN Chronicle, Volume XLVII · Number 3, 2010.
2. Stephen R., Covey, The 8th HABIT; From Effectiveness to Greatness, Free Press, 2002.
3. Davis, Stan M, Lessons from the FUTURE, Capstone Pub., 2001.
4. Gaudelli, William,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Routledge, New York, 2016.
5. Kronman, Anthony T., Education's End: Why Our Colleges and Universities given up on the Meaning of Life, Yale University Press, 2014.
6. Lewis, Harry R. Excellence without Soul: How a Great University Forget Education, Public Affairs Pereus Book Group, New York, 2006.
7. Kim, Young-Gil, See the Invisible, Change the world, Xulon Press, 2006, 76-76.
8. Kim, Young-Gil, "A shift of higher educational paradigm with scientific development from isolation to integrative/holistic global educ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Educational Research, Vol. 1(4), 075-087, 2010.
9. Kim, Young-Gil, Syntropy Drama: From Entropy to Syntropy, Duranno Publisher, 26-34, 2014.
10. Kim, Young-Gil, "Why not transform the world?: UNAI GRACE School for achieving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ducational Research, Vol.7(5), 075-087, December 2016.
11. Kim, Young-Gil, Study Hard to Give: Holistic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Vision & Leadership, an imprint of Duranno Ministry, Seoul, Korea, 2018.
12. Kim, Young-Gil and Kim, George Gihong, "Tomorrow Today: Entrepreneurship as the fishing rod in place of the fish", UNESCO Publication, 2010

13. Stiglitz, J, Making Globalization Work, W.W Norton & Company, 2006.

14. “World Conference on Higher Education 2009”, UNESCO Reforming Higher Education, 2009. Available at: <http://www.unesco.org/new/en/education/themes/strengthening-education-systems/highereducation/reform-and-innovation/worldconference-on-higher-education>.

저자 약력

김영길 박사는 1994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민국 포항에 위치한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재임하였다(www.handong.edu). 현재 유엔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동대학교의 명예 총장이다.

미국 뉴욕 주 트로이의 RPI 공과대학교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일리노이 주 어바나 샴페인의 미육군공병연구소(CERL),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미국항공우주관리국(NASA) 등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1985년 NASA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의회로부터 특별 의회상(Special Congressional Recognition)을 수상하였다. 1978년 카이스트(KAIST) 교수로 귀국, 15년간 재직하였다. 그 후 1994년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부임하였다. 2009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분과 위원장, 2010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2011년 한국대학교 교육협의회(KCUE) 회장, 2012년에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 원장을 역임하였다. / ygilkim9@gmail.com